

내가 예쁘다고?



같은 반 친구 김경희가 무심결에 중얼거린 ‘예쁘다’는 말의 뜻을 찬찬히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자기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예쁘다는 말의 의미를 따라가는 동안 섬세한 감정 변화와 더불어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말의 진짜 속뜻을 찾아간다. 아이는 자기 안에서 예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타인의 평가 속에서 찾아내려고도 하고, 노을처럼 주변에서 발견하기도 한다. 이명애 작가는 교실 안의 평범한 일상에서 살짝살짝 드러나는 섬세한 감정들을 따뜻한 그림에 담았다.

황인찬 지음 / 이명애 그림

주제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과 주변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미학, 예술적 경험, 아름다움, 예쁨, 가치, 마음, 행복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4도04-02] 참된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느껴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한다.
작성자	창원 하북초등학교 조소영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무심코 지나치던 영역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일’이 시라면 황인찬 시인이 ‘예쁨’을 발견해나가는 간질간질한 마음을 시처럼 동화처럼 표현한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책이 되었다. 시인 황인찬이 쓰고 화가 이명애가 그린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는 출간 전에 이미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여름 첫 책’에 선정되었다.

황인찬 시인은 22살에 등단한 뒤 첫 시집 <구관조 씻기기>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다.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 <희지의 세계>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은 고정 팬이 많은 시인이 되었다. 시만 써오던 시인이 처음으로 쓴 그림책 글이 《내가 예쁘다고?》이다. 남자아이가 무심코 들은 ‘예쁘다!’는 말을 계기로 ‘예쁘다는 게 뭘까?’를 찾아나가는 이야기이다.

시처럼 어렵지 않고 쉬운 언어로 쓰여 있지만 다 읽고 나면 가슴은 몽글몽글해지고 머릿속은 ‘예쁘다는 게 뭘까?’를 생각하느라 복잡해진다. 황인찬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이명애 작가는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나미 콩쿠르 은상, BIB 황금사과상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주는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작가이다. 황인찬 시인과 이명애 작가의 환상적인 콜라보 결과로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가 완성되었다.

■ 학습 목표

- 등장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 이야기를 읽은 후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다.
-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 수업 준비

요즘 아이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 TV나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아이돌 가수의 외모 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유행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은 꼭 포함될 것이다. 어쩌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과 생각조차 못해 봤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흐뭇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이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느끼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에서는 짝에게 우연히 ‘예쁘다’는 말을 들은 뒤 예쁘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예쁜 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책을 읽으며 아이들과 함께 예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기 주변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수업 준비물 연꽃 기법 학습지,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사진기 또는 스마트폰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표지 살펴보기	1차시
읽는 중	함께 책 읽기	1차시
읽은 후	‘예쁘다는 건 무엇일까?’ 이야기 나누기 ‘나는 예쁘다!’ 책 만들기 ‘내가 찾은 예쁜 것’ 사진전 열기	3차시

읽기 전

1. 마음 열기

-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노래 듣기
 -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노래를 듣고 따라 불러봅시다.
 - 노랫말에서 무엇이 예쁘다고 하였나요?
 -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마암분교 6학년 이창희 시,
백창우 곡, 굴렁쇠 아이들 노래

출처: 보리출판사 누리집/ 보리 어린이 노래



Tip. 이 곡은 초등학생이 꽃을 관찰하여 지은 시를 노랫말로 만든 노래이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각각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2. 표지 살펴보기

- 표지 살펴보며 이야기 나누기
 - 표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예) 교실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 이 책의 제목은 ‘내가 예쁘다고?’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나요?
예)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예쁘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예쁘다는 말을 들어서 놀란 것 같아요.

읽는 중

1. 함께 책 읽기

■ 책을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면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남자아이가 학교에 가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 속표지를 살펴봅시다.
예) 남자아이가 거울을 보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오늘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누가 누구에게 '예쁘다'고 말을 했나요?
예) 여자아이(경희)가 남자아이에게 예쁘다고 했어요.
-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표정이 놀란 것 같아요.
'예쁘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 '예쁘다'라는 말을 들은 '나'의 기분은 왜 이상할까요?
예) 자기는 남자인데 예쁘다는 말을 들어서 어색한 거 같아요.
스스로 예쁘다는 생각을 못 해 본 것 같아요.
예쁘다는 말을 어떤 뜻으로 한 것인지 몰라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 '나'는 '예쁘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생각했나요?
예) 예쁘다는 건 잘 생겼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쁘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 '예쁘다'라는 말을 들은 후 '나'의 마음이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 어쩐지 밥이 더 맛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주 간질거린다고 했어요.
좋은 꿈도 꾸고 잘 잤다고 했어요.
김경희에게 먼저 아침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어요.
- 경희가 예쁘다고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 창밖에 핀 벚꽃이었어요.
-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혼자 착각한 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쁜 게 아니라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 벚꽃을 바라본 후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예쁜 벚꽃을 보고 속상했던 마음이 나아졌을 것 같아요.
예쁘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벚꽃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 마지막 장면에서 '나'의 머리에 그려진 벚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벚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벚꽃처럼 '나'도 예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읽은 후

1. '예쁘다는 건 무엇일까?' 이야기 나누기

■ 연꽃 기법 활용해서 생각 정리하기

- 여러분은 '예쁘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 예쁜 물건, 꽃, 동물, 도시 등

- '예쁘다'라는 것을 떠올릴 때 드는 생각을 연꽃 기법으로 정리해 봅시다.

Tip. 연꽃 기법은 연꽃과 같은 모양으로 머릿속의 상상을 뽀여나가며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할 때 주로 쓰이며 이 활동처럼 중심주제와 관련된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 예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기

-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꽃 기법으로 정리한 것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예) 예쁘다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꽃이고 특히 수국, 라벤더, 무궁화, 벚꽃이 예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색이 예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쁜 것들도 있어요.

-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이 있나요?

예) 생각보다 예쁜 것이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마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도 예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예쁘다는 친구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예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 '나는 예쁘다!' 책 만들기

■ 나의 예쁜 곳 찾아보기

- 여러분은 자신이 '예쁘다'라고 생각하나요?
- 나의 예쁜 곳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친구나 가족에게 나의 예쁜 곳을 물어봐요.
내 얼굴이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해야 해요.
나의 특징을 깊이 생각해봐야 해요.
- 나의 예쁜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나는 예쁘다!' 책을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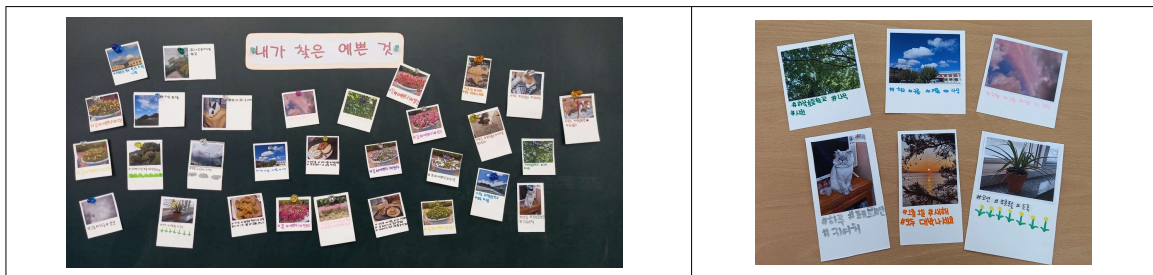


- '나는 예쁘다!' 책을 만들어 보니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었나요?
예) 평소에 내가 예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나도 예쁜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의 예쁜 점을 찾느라 힘들었어요. 평소에 내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의 예쁜 곳을 찾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왠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3. '내가 찾은 예쁜 것' 사진전 열기

■ 일상 속 숨어있는 예쁜 것 생각해보기

- 우리 주변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예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 꼭꼭 숨어있는 예쁜 것들을 찾아 사진을 찍어봅시다.
- 여러분이 찍어온 사진을 모아 사진 전시회를 열어봅시다.



-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사진으로 찍었나요?

예) 고모할머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느티나무 숲에서 하늘을 봤는데 나뭇잎과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보니 구름이 너무 예뻐서요.

- 사진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과 그 사진이 기억에 남는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예) 00이가 치킨이랑 크로플 사진을 찍어왔는데 예쁜 맛이라고 해서 재미있었어요. 맛있는 것도 예쁜 것에 포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찍은 우리 학교 사진을 보고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매일 볼 때는 몰랐는데 사진으로 보니 예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 ‘내가 찾은 예쁜 것’ 사진전을 관람하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예) 우리 주변에 예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사진을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요.

친구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귀여운 사진도 있고, 아름다운 사진도 있어서 보면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 ‘내가 예쁘다고?’ 그림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활동이나 친구와 나눈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예) 연꽃 학습지를 하며 예쁜 것들을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 예쁜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쁜 것들을 떠올릴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 해졌어요.

사람마다 예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예쁜 것을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었어요.

모양을 예쁘게 하려고 꾸미거나 성형한 것 말고 있는 그대로 예쁘다는 친구의 말이 멋졌어요.